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주관한 '제1회 사모 위로 행사'에 참석한 목회자 부부 및 그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침과 위로, 마음의 평안 얻고 가요”

**LA목회자아버지학교 주최
 제1회 사모 위로 행사
 38목회자 가정 90여 명 참여**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주관하고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가 후원한 '제1회 사모 위로 행사'가 데저트햇스프링스에 있는 CJ 그랜드호텔 스페에서 22-23일 양일간 열렸다.

이 행사에는 38 목회자 가정

서 총 90여 명(자녀포함)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박세헌 목사(예수교회 담임)는 그 개최 취지에 대해 “사모들은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도맡아 하는 목회자들의 보이지 않는 동역자다”며 “그 수고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고자 사모를 위한 행사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고 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첫날 저녁(22

일)에는 이상훈 목사(성광장로교회 담임)의 사회, 정충일 목사(LA 기쁨의샘교회 담임) 찬양인도, 이은수 목사(이해영 사모의 특송과 간증 등)와 함께 휴식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사모들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아버지학교를 다녀온 남편들이 변화가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점점 사라져 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고 했다.

둘째날에는 아침 식사 후 김근수 목사와 함께 하는 바다위십, 남상국 목사의 흥미진진한 비주요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졌다.

사모들은 이 행사를 통해 위로,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며 주최 측에 감사했다.

한편 이 행사를 후원한 시애틀 형제교회는 숙박비 전액과 소정의 기프트카드를 사모들에게 증정했다. [자료제공:LA목회자아버지학교]

육적 장애 영적 장애

우리 곁에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이 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 수화를 통역하는 통역사,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성경 등,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들이 너무도 열약하다.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많은 역할 중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장애인을 품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 장애들을 돌아보자.

우리들에게는 보고 있지만(육체적인 눈) 보지 못하고(영적인 눈) 듣고 있지만(육체적인 청력) 듣지 못하는 것(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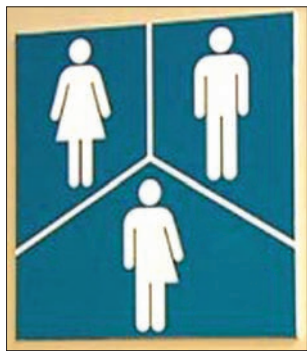
장애라는 모티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고민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꿈꾸자.

“성전환 남성에게 여자화장실 출입 허락?”

노스캐롤라이나 ‘화장실 법안’ ...美정치권도 전쟁 중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화장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팻 매크로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일부터 시행 중인 이 법안은, 주 내 모든 자치단체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최소 13개 주가 노스캐롤라이나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단체나 대기업, 스포츠 단체, 유명 스타 등이 항의에 나섰다.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지난 10일 예정됐던 노스캐

롤라이나 공연을 전격 취소했고, 비틀스 멤버인 링고스타도 오는 6월 캐롤라이나에서 열기로 한 콘서트를 철회했다.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은 360만 달러(약 41억 원) 상당의 노스캐롤라이나 투자 계획을, 도이체방크도 시설 투자 계획을 취소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미시시피 주에 공무원 출장을 금지시키는 주정부와 시정부의 수도 늘고 있다. 현재 2개 주를 공무원 출장 금지 구역으로 못 박은 주는 코네티컷, 미네소타, 뉴욕, 버몬트, 워싱턴 등 5개다. 워싱턴D.C.와 신시내티,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솔트레이크 등 16개 도시도 이를 따랐다.

정치권에서도 성소수자 차별 반

대 금지법안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21일 NBC방송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에 출연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금지법에는 문제가 많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전환자만을 위한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자는 큰 움직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차별적이다. 그냥 원래대로 놔두면 된다”고 했다.

트럼프 후보에 이어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이제 성인 남자에게 소녀들의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요구에 가세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지구의 날”이 1970년 4월 22일에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현대 환경운동이 탄생했다. <지구의날 운동본부>에 따르면, 원래 “지구의 날”은 당시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이던 게이로드 넬슨(Gaylord Nelson)이 창안했으며 전국적으로 2천만 명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을 위해 시위를 벌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를 ‘확립된 과학’(settled science)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대가 됐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 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한국문화센터가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문화의 핵심은 신앙”

한국문화센터 44주년 기념예배... 한국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확인

LA의 상징물인 LA 시청, 그것도 LA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톰 브레들리 타워룸에 한인들이 모여 한국문화센터의 44주년을 기념했다. 22일 열린 기념 감사예배에는 180여 명이 참석해 한국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는 “신앙의 전수(시78:4~8)”란 설교에서 “문화의 핵심은 신앙이고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다. 신앙의 전수를 통해 문화를 전수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했다.

예배 후 행사에서는 독도화가로 유명한 권용섭 화백이 즉석에서 LA 강을 수묵으로 그려내는 그림 한 마

당을 펼쳤고 동시에 유태경 옹이 해금을 특별 연주했다. 이 행사를 축하하며 에릭 가세티 시장,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임태랑 LA평통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한국문화센터는 1972년 4월 22일 미주 한인들의 동포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 문화를 미국사회에 알리고자 이광덕 목사에 의해 한국문화회관이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500여 명을 수용하는 강당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자연스럽게 한인타운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됐다. 1973년 LA시 주최 아시아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1974년 한국 소년태권도시범단 초청을 시작으로 활동을 넓혀 1985년 연변조선족 가무단 초청, 1990년 연변조선족소

년예술단 초청 행사를 했다. 그러나 대북지원사업을 하던 이광덕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는 등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한국문화회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스코틀랜드 커뮤니티에 팔렸다가 1981년 성광장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가 구매했다.

그러나 이광덕 목사의 장녀 크리스틴 리 씨가 한국문화회관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면서 활동이 재개됐다. 이후 2015년 10월 LA 시의회는 버몬트 길과 24가가 만나는 교차로, 과거 한국문화회관이 있었으며 현재는 성광장로교회가 위치한 곳에 한국문화센터 광장(Korean Cultural Center Inc. Square)이란 현판을 달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엠마오장로교회가 2명의 장로, 4명의 권사를 세웠다.

“영적 대각성 준비하는 교회될 터”

엠마오장로교회 임직 감사예배... 12년만에 임직자 세우는 감격 나뉘

엠마오장로교회에 경사가 났다. 지난 12년간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엠마오교회가 24일 오후 4시에 KAPC 남가주노회 임원과 내빈들이 분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2명의 장로와 4명의 권사를 세웠다.

최준우 담임목사는 “은 성도들이 지난 12년간 장로님과 임직자들을 세우기 원했다”면서 “이 기간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부임한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지난 기간은 마치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심정이었다”며 “무너진 성전의 성벽을 잘 쌓고, 영적 대각성을 준비하는 엠마오교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담임)는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라(담전 1:12~16)”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엠마오의 뜻은 온전수”라면서 “엠마오교회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는 교회가 되라”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축사와 권면을 전한 김재현 목사(테메큘라중앙교회 담임)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움과 낮아짐, 수난과 희생의 의미를 알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과 희생의 삶을 다하라”고 전했다.

임직된 이용구, 이수호 장로는 “지난 어려운 12년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과 겸손, 기도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준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임직 감사예배는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의 기도, 김상덕 목사의 말씀선포, 장로임직, 권사임직, 축사 및 권면, 임직 장로의 답사, 김홍수 집사의 특송, 정철 목사(남가주노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은혜롭게 드려졌다.



청소년의 부흥을 꿈꾸며 이번 행사를 준비한 UC샌디에고 대학생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참 복음을”

순 무브먼트-샌디에고교협... 영적 부흥회 개최

순 무브먼트(SOON Movement, KCCC)가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회장 이호영 목사)와 함께 지난 23일 토요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적 부흥회를 개최했다. 순 무브먼트에서 도시 사역을 맡고 있는 이기송 간사는 “어른들을 위한 행사는 많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행사는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80%의 학

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참 의미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연합체가 차세대를 위해 뜻을 모아 준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이 행사에는 170여 명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참석했다. 샌디에고교협 소속 교회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

고 UC샌디에고 대학생들이 게임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무려 6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또 노회권 선교사가 지휘하는 오페라 캘리포니아 유스콰이어가 찬양을 불렀으며 샌디에고교협은 중고등부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내 소외계층 청소년과 탈북자녀 13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청소년연수단>이 25일 오후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박형만 장로·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를 방문했다.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대학, 직업학교,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청어람아카데미가 25일 서울 창천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연대로'라는 주제로 제7회 청년사역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주제 및 세션 발제로 진행된 가운데, 청년들의 경제·주거·교육 등 다양한 현안들을 다뤘다. -편집자 주

“청년 사역”을 위해 포기한 두 가지

성장지향적 교회관과 권위주의적 리더십 구조 포기 현실에 맞는 양육과 사역으로 청년 공동체 성장

'세상을 비추는 영성'을 발제한 이한일 목사(높은뜻광성교회 청년 마을)는 과거 높은뜻광성교회 청년 사역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수가 2011년 평균 188명에서 2015년에는 평균 320명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세례교인의 증가가 아닌 수평이동으로 인한 것이었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 없이 늘어만 가는 인원으로는 공동체성을 키워나가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목사는 "또 단순한 성장지향적 교회론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과 우리의 교회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교역자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다"며 "아울러 개인 중심의 신앙관과 교회 권위에 대한 거부감 등이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수 개월간 교역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과 토론을 한 후 두 가지를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바로 성장지향적 교회관과 권위주의적 리더십 구조였다. '얹'과 '살' 모두를 제대로 아는 것을 교회의 핵심 과제로 두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양육 시스템과 각종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비효

율적 효율성'을 모토로 시작한 양육 시스템이었다. 이목사는 "교역자 한 명이 양육 과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아닌, 전 교역자가 한 과정에 모두 투입되는 '비효율성'으로 청년들에게 영적 '효율성'을 제공했다"며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신앙관을 뛰어넘고자 '세상을 비추는 영성'에 입각한 성경 감의를 지속했다"고 소개했다.

이목사는 "양육과 사역을 그대로 재단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청년 공동체는 성장했다"며 "지루한 회의, 더딘 진행, 끊임없는 의심을 동료 삼아, 새로운 틀을 가지고 매년 갈지 않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1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동체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청년사역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전히 여러 사역과 프로그램 및 비전들이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현실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는, 많은 고민에서 생겨난 수

많은 과정들이 우리를 성장시켰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몇 개월, 몇 년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온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응한다고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지역을 품는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돈” 때문에 꿈을 잃는 청년들

구체적인 재정 사용에 대한 부분 다루지지 않으면 청년들은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받고 꿈 잃게 돼

첫 세션에서 설성호 이사(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돈 때문에 꿈을 잃는 청년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오랜 시간 청년사역을 하면서 기존 제자훈련의 한계를 느꼈던 것도,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제자훈련을 해도 재정 사용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루지지 않을 때, 결국 청년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다"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보면, 돈 때문에 꿈을 잃고 돈 중심의 사고에 더욱 매여가는 것만 같이 안타깝다"고 했다.

고 했다.

설 이사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온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그가 참여하고 있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청춘희년운동'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사역에 동참해 △재무교육 △금용소외 청년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의 어떤 공동체'를 주제발제한 김성윤 소장(문화사회연구소)은 "헬조선·지옥불반도·망한민국 같은 자학적 세계관은 분명 20대들에게서 나왔다"며 "모아 놓고 보면 대강 '한국의 청년들은 이 시대의 피해자다' '포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등"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양식을 갖춘 사람이 되면 금세 알아챌 수 있다. '이게 어디 20대들만의 문제일까'라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불안정한 삶, 절망에서 비롯된 원한과 냉소 등은 모든 세대의 문제이며, 우리들이 처한 역사적 국면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그런 점에서 대개의 '세대론'이란 사태를 왜곡시키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날의 청년 담론이란 것에도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좌절 때문에 외향적으로 분노하거나 내성적으로 우울해지는 문제들을 그들만의 문제로 몰아버리는 것, 그리고 혁명이든 힐링이든 사태 해결의 책임마저 그들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것. 히스테리적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모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타겟-남녀 혼용화장실, 타의실 사용규정...불매운동 불려와



타겟 로고 ©kikipedia

미국에서 성(性) 전환자(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들이 어떤 화장실을 쓰게 할 것인지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대

형 유통업체 '타겟(Target)'이 논란에 휩싸였다. 타겟은 20일 "남녀가 동시에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시도한 첫 마켓이 되었다. 다시말해 트랜스젠더 직원과 고객(출생 시 성이 아니라)이 각자의 성 정체성에 따라 매장 내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 직후, 이런 상황을 믿을 수 없었던 그래픽 로리 목사는 자신의 동네에 있는 타겟의 고객센터에 가서 이 정책이 실제 타겟 정책인지 문의했고, 고객센터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새로운 규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우려하는 여러 기독교 단체와 보수시민단체(미국가족협회(AFA) 등)들은 일제히 타겟 불

매운동에 들어갔다.

인터넷 서명운동도 벌여 27일 기준 8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타겟은 "성 전환자도 소속감을 느낄 권리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타겟은 몇 년 전부터 LGBT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마켓이다. 2015년 8월부터는, 美 전역의 가장 큰 체인 마켓들 중 처음으로 남·여 아이들의 장난감에 boys & girls 라는 라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

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화장실까지 "성전환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아래 99.7%의 일반인 화장실을 "남녀 동시 혼용"을 허락하는 "All Gender Bathroom" 정책을 만든 것이다. 이 정책은 여성들과 자녀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美 전역에 0.3%도 안되는 성전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99.7%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화장실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게 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tvnext.org 참조

이영인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연금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리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살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7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Since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00-3588,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모임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측에서 네 번째부터 김희창 목사, 이필섭 장로, 이기홍 목사.

“이필섭 장로 LA 방문해 군선교 상황 보고”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세계기독교인회장을 역임했던 이필섭 장로가 LA를 방문했다. 이필섭 장로는 23일 오전 11시 윌드미션대학교에서 열린 군사랑선교회 월례모임에서 회원들에게 한국 군복음화 현황과 세계기독교

인회의 선교 상황을 보고했다. 이 모임은 회장 김희창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이신모 원로회 사무총장이 기도하고 최정학 협력사무총장이 마가복음 1장 14절-20절을 봉독했다. 이기홍 목사가 “그리스도의 부르

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엄규서 남가주한인목사회장이 조국과 북한, 미국, 군선교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권상우 기독교인회장이 헌금기도했으며 원로회장 김명관 목사가 축도했다. [자료제공: 군사랑선교회]

굿네이버스 한국 단체 최초 인터액션 가입

기독교 정신의 국제구호기구인 굿네이버스가 한국인이 설립한 단체 최초로 미국 최대의 국제구호 및 개발 연합체 인터액션(InterAction)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단체에는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해비타트, 옥스팜,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등도 가입돼 있으며 총 회원은 180여 개다.



은 굿네이버스가 국제구호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 UN, 미국정부, USAID 등과 협력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을 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돼 현재 전 세계 38개국에서 187만 명을 섬기며 국제구호 및 사

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96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 받았고 2007년에는 UN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관련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유월절 만찬”

류 여호수아 이스라엘 선교사 인도

〈송송함니다〉의 저자 류 여호수아 이스라엘 선교사가 인도하는 “유월절 만찬” 행사가 22일 저녁 키버어메리카 사무실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축제 중 첫 번째는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이클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유월절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류 선교사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만찬에 대한 성경적 접근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저



9. 단풍

제아무리 가을색이 최고에 있다 하여도/구름이 빛을 가리면 그 찬란함을 거의 잃고 만다./하물며 땅거미가 지면 그 색이란 무엇이 남는가/단풍이 단풍인 것은 잎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저를 비추는 빛 때문이란 것을 잠시 잊었었구나./나무에 붙어 새벽여명을 기다린다.

긴 하였다. 어쩌면 그리스인들이 처음 보기에다 바나바가 더 큰 신 같아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유별나게 못생긴 것은 아니었는데, 바울은 가끔 뜻밖에 자괴감 내지 열등감 같은 것을 그의 사역기간 동안 드러내곤 하였다.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퍼뜨리는 악소문을 굳이 언급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하였는데(저자주-고린도후서 10장10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예수의 직계 제자들과 달리 평생을 사도의 권위에 대해 공격을 받은 그의 처지가 떠올라 한편 안쓰럽기도 하다. 사실 비교할자가 없을 정도로 이 새로운 믿음의 탄생에 기여한 그인데.

10. 헤르메스 바울을 변호한다

사도바울의 사역 회고담에 꼭 빠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얇은 뱀이 하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리스의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종종 사람의 형상으로 지상에 내려와 이적을 행하곤 하였으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며 소동한 것은 그들 문화에서는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저자주-사도행전 14장에 이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누구던가.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는 결국 하나님과 같은 반열이고,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인 헤르메스까지 언급하였으니 이는 꼭 예수를 지칭하는 느낌이지 않은가. 바나바와 바울의 강력한 저항과 이어진 설교는 아마도 두 신실한 사도가 모세 십계명의 첫 두 조항 즉 신성모독죄를 깊이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시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가 간질병을 앓았다는 소문도 꽤 많이 돌아다닌다. 바울이 한 서신에서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를 없애지도록 간구하였으나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적은 것이(저자주-고린도후서 12장) 성도들 사이에 회람되면서 더욱 이러한 추측을 가져온 듯 하다. 그러나 직접 바울을 본 나로서는 근거없는 얘기가 증언할 수 밖에 없다.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사용한 헬라어 Astheneia는 오히려 신의 기록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인식한 사도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선택한 탁월한 지도자 바울, 오늘날 그가 몹시 보고 싶다. <계속>

OC 지역 TEE 지도자 세미나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세미나가 남가주 풀러튼에서 열린다.

TEE는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도에서부터 시작해 기초 양육, 사역자(일꾼), 선택, 심화 과정 등 20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1개 국가에서 80여 개 언어로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을 지역교회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 세

미나를 수료해야 하며, 세미나 현장에서 전체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일시: 5월 5일(목)-6일(금) -장소: KTEE 미니스트리 미주본부 세미나실 주소: 251 E Imperial Hwy, Fullerton, CA 92835 -등록비: 100불(교재 및 점심 포함) -문의: 714-350-4211 -참조: www.ktee.org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65th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WAKE UP AMERICA

NATIONAL DAY OF PRAYER
MAY 5, 2016

제 65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2016년 5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미국이여 깨어나라!

금년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뽑는 중요한 해 이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은 교만과 배도와 무고한 피 흘림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미국이 영적, 도덕적, 경제적, 국제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최: OC 한인목사회, OC 평신도연합회, OC 장로협의회, OC 여성목사회, OC 원로목사회, 남가주 각지역 교협/목사회, KCCC(SOON Movement), 미주성시화운동본부, CMF, 미스바기도운동, Fire Crusade, HYM, Jesusholic Movement

Jama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JAMA, OC 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문의처: JAMA (323)933-4055, OC교협 (714)615-9191, 은혜한인교회 (714) 336-4378 www.jamaprayers.com

남은 자에 의한 회복의 섭리

룻기 1:1 ~ 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곤란하게 된 것은 죄 값의 징계였는데 회개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룬 두 아들을 데리고 재산을 정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1. 베들레헴을 떠나는 불행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으로 예고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곧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서 강단으로부터 목자를 통하여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이 무진장 공급됨으로 그 교회에 속한 양떼가 배불리 먹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소망을 가꾸게 하는 곳입니다.

양떼가 생명의 떡집을 떠나 저주받은 이역 땅 모압에 가서 안주하며 웰빙(well-being)하겠다고 자리를 잡은 것은 신앙회복을 위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반역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압으로 가져간 그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더 잘 섬기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죄악의 도성에 가서 탕진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남았던 것입니다.

왜 가장인 엘리멜렉이 서둘러 죽어야 했는가를 남은 가족들이 바로 깨달아서 서둘러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었다면 두 아들마저 객사하는 불행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다가오는 죽음을 깨닫지 못한 불찰로 두 아들마저 죽고 결국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청상과부 두 명과 세 과부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객지에 물어버린 처참한 신세가 되어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참담하고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베들레헴 회복의 복음을 듣고 귀향을 서두르는 나오미(6절 이후)

나오미가 모압생활 10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모압 여인인 두 자부와 함께 지내는 세월은 탄식과 절망이며 너무나 처절하고 참담한

신세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세월 속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뜻을 정한 것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원인임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13절 후반 말미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하나님의 떡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 개가하여 인생을 새 출발하도록 강권했을 때 큰며느리 오르바는 작별인사 하고 돌아갔으나 작은 며느리 룻은 극구 사양하며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동숙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며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부득이 룻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았거나 성공한 나오미가 아닌데도 룻이 그토록 시모님을 붙좃아 따른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룻도 하나님의 매를 피하여 도망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과 때를 맞은 후에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신도는 반드시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믿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 회복받기 위한 회개의 진실성(19절 이하)

회개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고 떠들썩했을 때 나오미(기쁘고 즐거움)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쓰고 괴롭다)라고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했으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피하고 모압 땅에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불신세계와 어울려 잘 살아 보겠다는 웰빙의 꿈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되며 하나님을 능멸한 죄, 배은망덕한 죄악의 행보였음을 뼈가 저미도록 후회하며 통탄

하는 아주 솔직하고 진실된 깊이 있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생명의 떡집 진리의 교회를 쉽게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죄악의 홍수에 휩쓸리거나, 주께서 맺어주신 목양지간(牧羊之間)의 인연마저 헌신짝 버리듯 믿음 없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목회의 사명을 위해 몸부림쳐온 목자의 가슴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아픔보다, 떠난 양의 당하게 될 불행과 멸망을 우려하며 가슴 조여야 하는 안타까움을 어찌 할 것인가?!

4. 룻을 통한 나오미의 회복섭리(4장 10절 이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BC1110년대)에도 이방 여인 모압 태생의 룻을 택하시어 나오미의 자부가 되게 하고 시부와 시속 남편까지 남자라곤 다 죽어버린 불행한 가정,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가정의 시모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에 편승하여 룻도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철저히 믿는다는 고백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라 회개하는 나오미에게 회복을 위한 자료가 되게 할 룻으로 또한 이방귀원의 의지를 밝히시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셨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였고 오벳을 낳게 하여 다윗왕조의 계보에 등재될 뿐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공히 등재되는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모였으나 룻의 친모와 같은 관계와 역할로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양육하

여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아니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자보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4:13~17)

진리의 떡 생명의 떡집인 교회를 떠나 저주받은 모압과 같은 죄악세상에서 어리석은 기대와 허황된 꿈에 도취되어 세월 허송하며 실패와 멸망을 재촉하지 말고 서둘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목자와 교회를 찾아 돌아가십시오! 거기엔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의 두 팔을 벌리시고 그대를 뜨겁게 환영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과 은혜보장의 생명길로 회복시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과 같이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말론과 기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가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정이 씨가 말라 몰락하는 진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떡집을 떠난 삶으로, 없어지거나 죽어가기 시작하거나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회복 받으라는 징계적 섭리 인줄 깨달아 물질이나 명예나 목숨이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 받으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판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urch
Everyday

사역자 청빙 광고

Los Angeles Northridge 지역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1 목회부 사역자(남자 1명, 여자 1명)

- a. 자격요건
 - i. 정규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M.Div)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분
 - ii.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에서 목회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b. 지원서류
 - i. 이력서 w/가족사진
 - ii. 신앙고백 및 자기 소개서
 - iii. 목회자 추천인 2명 (이름, 소속단체, 전화번호)

2 기타내용

- a. 청빙 신청 마감은 2016년 5월15일까지입니다.
- b.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c. 서류를 보내주시길 이메일 주소:
(churcheveryday99@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바누엘교회

바누엘교회 중고등부와 대학부 교역자를 모십니다

■ 사역부서

중고등부 1명, 대학부 1명 (각각 1분씩)

■ 자격

정규 신학교 졸업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담당 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
학생들을 좋아하시는 분
(가급적, 중고등부 사역자는 25-30세 정도의 미혼,
대학부는 30세 전후의 기혼자)

■ 연락처

바누엘교회 담임목사 이동배
T(818)823-5464, (213)353-4688

바누엘교회

190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시지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다음학교” 다녀왔습니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필자는 본 교회가 돕고 있는 한국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다음학교”의 이전 기념식에 다녀왔다. 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후원을 검토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믿음으로 추진하는 학교사역이 필자의 방문 스케줄에 맞추어 이전 기념식을 하게 되었다.

이 기념식은 한국 정부와 연결된 공식행사여서 예배형식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애국가 제창과 더불어 시작되는 기념식이 새삼 뜻깊게 다가왔다.

2년 전에 방문할 때에는 아이들이 학교방만한 곳에서 지내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는데, 이제 크지는 않지만 좀 편리하게 꾸며진 예쁜 공간에서 너무 행복해했다. 무엇보다도 양재천이 학교 옆으로 흘러 자연 공간이 느껴지고, 아이들의 기숙사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언제든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리해서서 맘껏 공부하며 공동체 생활하는 데에 용이했다.

이번 기념식에 귀빈으로 초대된 분 중에 흥영표 통일부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과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 그리고 BMW 부사장이 있었다.

“다음학교”는 가장 모범적인 탈북학생 학교로 정부에서 상을 받

통일을 상징하는 “다음학교” 후원 요청에는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통일독일 된 경험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상징적 후원을 “다음학교”에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국지사 결정이 아닌 독일 본사 결정으로 진행되었고 독일 총리의 방한 준비로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원래 독일 대사도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회사 사장의 축사를 대신 전해주는 BMW 부사장은 프로농구 선수같이 키가 우리의 두 배나 되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일에 “다음학교”에서 배출된 창의적 인재들이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필자도 미주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중 한 사람으로써 많은 도전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온누리교회, 조이 어스교회 등에서 또한, 미국에서는 본 교회를 비롯하여 에브리데이교회 등이 협력하여 “다음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시작하여 올해 10년째 되는 다음학교가 통일시대, 다음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으며 우수학교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어령 전 장관은 먼저 천국 간 딸의 이름으로 도서실 시설과 책을 기증했다.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에서 지하 1층에 예배실 및 강의실을 전적으로 리모델링 해준 것이다. 기념식도 이곳에서 했는데, 약 5, 60여 명 들어가는 공간에 두 벽면 쪽으로 스타디움식의 좌석을 3단으로 돌려서 많으면 100명도 앉을 수 있었다. 프로젝터 스크린, 에어컨, 예쁜 무대 조명, 그리고 화재 시의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독일인의 자존심을 결코 꺾이지 않게 꾸며졌다.

기념식 후,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BMW가 “다음학교” 후원자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회사가 친환경 일에는 후원을 많이 해도, 분단된 남북한의 화합과

역할을 분별하라



박 용 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순서가 있고 각기 맡겨진 역할이 있다. 특히 축하 예배나 취임 예배 등을 드릴 때에는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그리고 축사나 권면, 축가를 맡은 사람들이 각각 있다.

일반적으로 주최 측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콘티를 짜고 순서를 정한다.

그러나 간혹 보면 사회자가 너무 멘트를 길게해서 행사나 예배를 지루하게 한다거나 축사를 맡은 사람이 권면을 하고, 권면을 맡은 사람이 축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축사나 권면을 맡은 사람이 아예 다시 설교하는 경우도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축도를 맡은 사람이 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전에 꼭 기도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설교와 기도와 축도까지 1인 3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

순서가 많은 행사나 예배는 지혜롭게 역할을 분별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순서에 임하면 정말 아름답지만, 한 두 사람의 과욕(?)으로 인해 나머지 다른 순서 맡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할 때

가 많음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순서에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보기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역할의 성격에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역할이란 무엇일까? 역할[役割, role]이라는 용어는 본래 연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극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배우들이 맡은 각각의 배역을 말한다. 배우들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맡은 배역에 따라 더해져도 안 되고 덜해져도 안 된다. 한 번 방향이 틀어

지면 연극은 엉뚱하게 흐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연극은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단체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역할을 맡은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한 몸예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전12:4-5) 고 말씀하시고 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의 역할을 바로 알아 역할 감당만 잘 해 주면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서로 돕고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이기에(창2:18) 필요에 따라 서로 혼용해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각자의 위치와 역량에 따라 역할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게 된다.

깨달음이 없는 인생



이 동 준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오늘날 우리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깨닫는 것이 적어서 문제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지식을 얻고 알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해서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기도 어렵고, 자신을 깨닫기도 어렵고, 자신을 이기기도 어렵고, 자신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되어야 하고 피조물인 인간 본연의 자세를 깨달아 겸손해져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되고, 추위를 견뎌냈으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직도 염려하느냐?”

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산다.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눈동자가 다르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도, 직분도, 선교도, 봉사도 모두

모두 은혜를 받고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대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넷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구원에 있다. 그 마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럼으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깨닫고 전도에 힘쓰게 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택션 대표, 폴 애실맨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컨벨 교수,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춘 쾰즈장로교회, 나광삼 큰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중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예수교회, 호성기 필라안디옥교회,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플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세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KYM 사무총장, 송충석 KWMF대표회장, 안성원 KWMF사무총장, 한도수 KWMF공동회장, 김중국 KWMF공동회장, 박명하 KWMF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사무차장, 김정환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안 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GKYM FEST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오정호 세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코트스키스트 플러신교대학원장, 고석희 KWMC 사무총장, 한정국 KWMA 사무총장,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김병운 필리핀 선교사, 강운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c.info / kwmf2016@gmail.com
KWMC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 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WK 선교사자녀대회, CTS 기독교TV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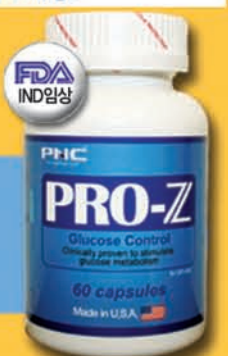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국군 내에서도 이슬람 확산 불가피... 대응 전략 모색해야

**제3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
이슬람의 군대 유입에
대처하는 첫 출발점 기대
2012년 말 조사 기준
이슬람 신자 16명
2015년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수 총 20만 8천여 명
군 내 이슬람 유입 불가피
이슬람 문제
군선교 사역 중요 이슈될 것



제3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0만 군장병 중 비종교인은 52%, 종교인은 48%이며, 종교인 중 기독교 신자는 27.6%, 천주교 신자는 7.3%, 불교 신자는 13.1%로 파악된다.

국방부가 2012년 12월 조사한 군 내 종교별 신자 현황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는 16명으로, 아직 극히 적은 수치만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20만 8천 명(초등학생 6만 283명, 중학생 1만 3,865명, 고등학생 8,388명, 나머지는 미취학 아동)이다.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무슬림들도 포함돼 있어, 군 내 이슬람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다. 국내 이슬람 신자는 한국인 7만 1천 명(2011년 한국 이슬람교중앙회 통계)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최대 25만 명, 비공식적으로 45만 명까지 헤아린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국내 이슬람 신자가 기독교 신자와 비슷한 4백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대에서도 이슬람 신자가 기독교 신자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날이 곧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군선교 전문 사역기관인 미래군선교네트워크(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이러한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군선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제3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슬람 종교의 군대 유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군선교 사역자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정차 이슬람 문제가 우리의 군선교 사역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 세미나를 통해 군선교 사역자들이 이슬람교를 제대로 알고, 선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전받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를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 김대덕 목사는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의 시대적 사명을 정확하게 진단해, 군 내 이슬람 유입에 대응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지 기대된다"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역자협의회 회장 김삼송 목사는 "군선교 사역자들에게 군생활에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는 미래군선교네트워크에 감사드린다. 군선교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날 한국기독교군선교역자협의회는 이 세미나에 앞서 제주도에서 열린 군선교 교역자 수련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래군선교네트워크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개최예배 설교를 전한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이사 민찬기 예수인교회 목사는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를 기본으로 하고 무엇보다 시대적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여, 나 자신뿐 아니라 남도 자라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슬람의 실제'에 대해 첫 강의를 전한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와의 신학적 차이점, 교회의 대응 등을 나눴다.

그는 이날 "한국에서 저출산·고



유해석 대표
FIM국제선교회

인 문화 및 이슬람 문화와의 다문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에 의해 800년간 지배를 받았어도 이슬람화되지 않은 스페인과, 이슬람 확장을 보며 꾸란을 연구하고 철저히 회개한 종교개혁 시대를 배워야 한다"며 "교회가 진정한 말씀을 전파하고 건강해져야 하며, 다음 세대 신앙 전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침체와 이슬람의 위협 속에서 부흥하려면 "첫째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둘째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합당한 삶

을 살고, 셋째로 부흥을 사모하고, 넷째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가의 군종제도를 소개한 육군 군종 손봉기 소령은 "군종교를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우선된 사명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논리로 보면서, 군종제도 자체가 부침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군종감대회에 참석했을 당시 유럽에 이미 군종이 많이 편재돼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럽 군종제도 안에 '휴머니스트 채플린'이라는 인본주의자·무종교 군종장교를 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매년 군 내 종교 인원을 파악해 오던 국가가, 2012년을 기준으로 종교 갈등 유발을 이유로 이

를 잠정 중단했다"며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3천여 명이 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 내 이슬람 유입이 곧 다가올 문제이므로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석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이슬람을 향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화개가 먼저이고, 이슬람의 문제에 앞서 우리의 문제를 봐야 할 것"이라며 "이슬람의 문제가 우리에게 화개와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사무총장 윤병국 목사는 "이슬람의 군대 유입을 논의할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며 "이번 세미나를 이슬람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가지 군선교의 문제와 장애를 주도면밀하게 고민하고 더 심화하여 대처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군선교네트워크는 참석자 전원에게 유해석 선교사의 저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김경원 이사장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전국에서 150여 명의 군선교 사역자가 참여해 이슬람의 군대 유입 대응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홈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CD/DVD 제작 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초청, 제작, 발송물 인쇄 전문)
junimmedia@gmail.com
Call: 323.265.0244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행음

-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발행음
-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50% 할인!**

한의학사랑
한 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튼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크리스천들의 비즈니스 무기를 만듭니다
sophiaproducton1.wix.com/2016
소피아 프로덕션
SOPHIA PRODUCTION
인쇄광고, 온라인광고, 그래픽디자인, TV광고기획, 스토리보드, 비디오편집, 초상화, 정밀묘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치독한 비듬,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IVY 교육칼럼(1)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한 효과적인 과외활동 전략

오는 9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이번 여름방학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2016년부터 바뀐 SAT 크리틱얼 리딩(Critical Reading)의 단어 수준이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단어의 수준으로 바뀌면서 단기간에 이 분야를 준비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권셸 비디렉터
아이비유학

반면 어려서부터 각 학년에 맞는 필독 도서 목록을 따라 꾸준히 독서를 한 학생은 상당히 유리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통해 어휘력을 길러야 함을 먼저 조언하고 싶다.

하버드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 예겐 언어, 시각, 논리, 창의, 신체, 그리고 정서 등 다양한 지능 분야가 있다. 이를 모두 극대화하면 최고 수준의 천재의 범주에 속하게 되지만 한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만 개발되어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대학 입시와 미래를 위해 자녀가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절약이다. 우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고 재능에 맞는 과외 활동을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지름길이다. 꾸준히 과외 활동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먼저 적성과 재

능을 찾고 과외 활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여름방학 동안이 가장 적합하다.

우선 과외 활동의 종류를 알아보자. 자녀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 활동은 자녀가 희망하는 목표, 전공과 부합되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술, 클럽(수학, 체스, 토론, 영화, 스피치, 모의재판), 커뮤니티 액티비티(지역사회 이벤트 스태프 봉사, 비영리 기관 활동), 관리 조직(학생회, 커뮤니티, 유스 이사회, 프롬 준비위원회), 미디어(학교신문, 로컬 또는 학교 방송국 인턴, Year Book 스태프, 온라인 저널), 군사(ROTC, 드릴팀), 음악, 스포츠, 자원봉사, 취미 활동, 교회 활동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학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깊이 했느냐”다. 입학사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을 소개한다. 이 기본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럽을 직접 조직하고 알찬 결과를 얻어냈다면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둘째는 리더십이다. 타인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보여 줄 수 있다. 만약 좋은 결과까지 얻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셋째는 깊이이다. 이 활동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깊이 있는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넷째는 전문성이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마지막 다섯째는 이들 요소의 균형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재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어떤 클럽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참여하면 좋다. 또 적십자나 PAVA 같은 단체에서 여름방학 동안 활동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분야에 어느 정도 실력과 관심이 있는지 진단해 보길 권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조언하고 싶다. 과외 활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학업을 앞지를 수는 없다. 어느 대학이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GPA와 SAT라는 것을 잊지 말자.

▲문의: 949-329-8222
이메일:shelby.moon65@gmail.com
[IVY유학 제공]

●채영삼 칼럼

주보에 헌금자 명단, 옳은가



채영삼 교수
백석대학교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게재하는 교회들이 많다.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등등.

넌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이 항상 같단다. 주보를 보았을 때, 거기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넌 사람들일 것이다. 당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까,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 앞에 당당할까.

내지 않은 사람들도 볼까. 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이류신자야.’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 리스트를 확인한 다른 성도들은, 그 리스트에 없는 그 성도를 어찌 볼까. 성도의 교제가 될까.

왜, ‘각자 믿음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고, 기쁘게 하라’는 그 헌금을, 이토록 ‘의의 기준’으로 변질시켰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꼭 주보로 확인시켜주어야 할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하고, 확인은 다른 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성도들에게 ‘믿음을 따라, 자원하는대로, 힘써, 기쁘게 하라’고 하면, 성도들은 정말 헌금하지 않을까. 참으로 말씀이 정직하고, 은혜와 공의가 넘치고, 깨끗하고 긍휼이 충만한 교회라면, 점점 더 열린 마음으로 힘써 내지 않을까.

항상 체크해야 하고, 율법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면, 어린이이라면 몰라도, 그 신앙이 정말 장성한, 진실

한 신앙으로 성장할까.

원래 성경적 전통대로라면, 수입의 20% 이상을 하나님 백성과 그의 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기준이다.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성장하는 대로, 더욱 힘써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참된 사랑은 진실함에 기초한다. 진실함에는 자량이 필요치 않다. 신앙이 진실할 수 있다는 전제를, 교회는 갖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믿고 있는가.

교회는 헌금과 관련해서, 성도를 믿는가. 말씀대로 믿는가. 모험 없는 사랑, 신뢰 없는 사랑은 없다. 그런 사랑은 있다 해도 의미가 적다. 참된 성장은 진실한 사랑에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 6:3-4).

●김만태 전문칼럼(2)

대학설립 ABC “미국에서의 직업대학 설립”

캘리포니아에는 UC계열, 칼스테이트와 같은 주립대학들과 여러 사립대학들이 있지만, 이들 대학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직업대학들(Vocational College)이 있다. 이 직업대학들은 BPPE(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립대학 교육국)의 승인 및 감독하에 운영된다. 캘리포니아에 현재 운영중인 이러한 직업 대학들의 수효는 1,700개가 넘고 전체 등록학생 수는 25만 명을 넘는다.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용적인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프로그램은 기간과 수준에 따라 1년 미만의 Certificate, 2년제 및 4년제 학사 학위,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의 분야는 의료, 치의, 간호, 한의, 수의, 위생, IT, 컴퓨터, 엔지니어링, 경영, 회계, 사무행정, 법률, 보안 및 경비, 부동산,

차량 정비, 교통, 운전, 건축, 디자인, 의상, 음악, 언어교육, 스포츠, 요리, 미용, 애완동물 관리 등 아주 다양하다.

대학 하면 큰 건물과 캠퍼스가 있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학 승인은 학생 수를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고 임대여도 상관 없다. 예를 들어 말하면, 총 학생수가 30명에서 100명인 경우 10명에서 30명 수용가능한 강의실 3개로 강의 커리큘럼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명칭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직업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반드시 주정부의 승인을 받고 대학을 운영해야 한다. 캘리포



김만태 대표
SAS인가켄셀링

니아 주정부의 승인없이 이러한 대학을 운영할 경우 적발되면 최소 5만불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가지의 직업대학 승인이 있다. 첫째, 1년 미만의 Certificate 과정만을 제공하는 직업대학인데, 캘리포니아 직업대학 전체의 56퍼센트가 이러한 1년 미만의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다. 5천불의 신청료와 함께 대학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카탈로그를 제출한다. 연방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제대로 갖추어서 제출하면 6개월에서 1년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과 BPPE의 규정과 관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출하면 3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두 번째 경우는 2년제 이상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대학인데 Certificate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5천불의 신청료와 함께 대학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카탈로그, 연방인가계획서를 제출한다. 연방인가를 5년안에 받는다는 조건에서 BPPE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시 승인(Temporary Approval)을 주어서 바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신청서류를 잘 준비하면 6

개월에서 1년 안에 임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BPPE에서 임시 승인 이후 5년 동안에 학교가 연방인가 승인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승인을 중지할 수 있다.

미국의 50개 주마다 자체적인 교육법규가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교육당국은 학교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들이 교육 표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주정부 교육국의 규정과 관행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직업대학 설립을 준비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SAS 인가 컨설팅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531-7215
▲이메일: summitus37@gmail.com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시간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주님의 마음

로버트 E. 콜먼 | 국제제자훈련원 | 188쪽

전 세계복음화위원회 창립 위원이었으며, 복음주의 운동 지도자이자 전도와 제자훈련 분야의 대가로서 존경받는 로버트 콜먼 박사. 그가 자신의 대표작으로 펴낸 책. 이 책은 40여 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 '목자의 심정'을 불어넣었으며, 앞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시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제자도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무신론의 진짜 얼굴

라비 제커라이어스 | 에센티아 | 272쪽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저자는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대학교를 비롯해 세계의 명문 대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복음 전도사다. 이 책에서 저자는 특유의 논증으로 무신론자들이 학문과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논리의 맹점을 정확히 짚고,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무신론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공간의 해석학

임시영 | 예수전도단 | 252쪽

성경 이해의 폭을 넓히는 분석과 통합의 해석학. 이 책은 구약학 교수인 저자 임시영 박사가 지난 5년간 강의, 설교, 성경공부, 성경통독에서 숭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신학대학교 교단과 교회 강단 사이의 틈을 메우며 연구한 성경해석의 결산이자 결실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한 저자는 성경통독을 하는 독자들의 필요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책을 저술했다.



직설

김관성 외 | 두란노 | 268쪽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위한 박영선 목사와 김관성 목사의 대담집. 독설의 박영선 목사와 본질의 김관성 목사가 직면하여 나눈 믿음의 대화! 삶, 믿음, 일, 배움과 가르침, 가정과 사회와 교회, 리더와 은혜에 대한 질문들. 후배 목회자와 나눈 10회에 걸친 대담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의 여정을 지속해야 하는 신앙인이라면 고민해야 할 대명제들을 다루고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욕먹을 각오로 쓴’ 현대 설교 비판서

아주 특별한 제목의 설교학 책이다. 과연 누가 이런 제목의 책을 읽을 것이며, 선물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언급한다.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며, ‘작정하고 글을 쓴다’는 내용이였다. 저자는 비장한 어조로 자신의 마지막 책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꼭 들려 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기로 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어조로, 현대의 설교자들과 설교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설교자가 없다’는 말로 저자는 글을 시작한다. 훌륭한 설교자, 아

니 평범한 설교자도 없다는 것이다. 많은 설교자에게 성경을 바르게 들려 줄 수 있는 ‘감성’이 없으며, 로터리 클럽에서 나오는 연설만 못한 설교가 울리는 곳이 지금의 강단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로버트 루이스 대브니의 「성경 수사학 강의」에 근거하여 설교의 ‘기본 요소’ 일곱 가지를 설명하면서, 현대 설교자들에게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진지하게 수준 미달의 현실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책의 중반을 지나며 저자는 현대 설교자들이 갖게 된 ‘설교의 질적 하락’ 원인을 분석한다. 문제는 설교자가 “책맹”이기 때문이라고 저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 데이비드 고든 홍성사 | 128쪽

저는 말한다. 현대 미디어들의 발달로 인해, 낮은 수준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로 인해, 고전 공부가 사라져 버린 것들로 인해, 현대의 설

교자들이 설교의 기본이 되는 ‘문학 적 소양’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저자는 방법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라는 것, 정보가 아니라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훈련을 하라는 것, 글로 기도하는 연습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다 읽은 소감은 책의 표지에 있던 작은 부제 ‘두꺼운 설교학 서적 열 권보다 나은 책!’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용기 있게 했다. 현대의 많은 설교와 설

교자들의 피상적 읽기와 말하기의 원인을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한 설교학 책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석에 많은 부분 공감했다. 아쉬운 것은 대안 부분이였다. 책의 분량 탓인지 저자에게 주어진 시간 탓인지, 제시하는 대안은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약해 보였다. 즉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의 설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설교를 개혁하기 원하고 노력한다면, 수 년 후 우리가 하는 설교는 많은 부분 달라지리라. 조영민 목사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For Sale

Fullerton: \$1.25 M, 25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충분한 파킹
Yorba Linda: \$4.895 M, 225석 본당, 3.25 AC Lot, 친교실, 부엌, 크리스천 학교
Downey: \$1.25 M, 160석 본당, 친교실, 부엌, 교육부 교실들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For Share

Anaheim Hills: 월 \$3,500.00,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Garden Grove: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Diamond Ba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Whittier: 월 렌트 네고, 주일 오후와 주중 모임 사용 가능
기타 지역별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찾아 드립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즈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증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용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예배실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자폐아들과 부모… 그리고 교사와 치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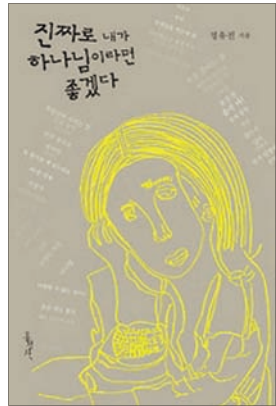
20년 전만 해도 자폐증 발생률은 5천 명당 1명꼴이었지만(1994년 통계), 2010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남자아이 38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한 학급당 1~2 명씩은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아동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폐증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폐아동은 타인과 소통이 어렵기에, 그 가족들도 심리적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도 높아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자폐아동이 늘면서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자폐일 확률이 2.64%에 이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자폐증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 지난 4월 2일은 유엔이 승인한 '세계 자폐인의 날'이었다. 이에 장애, 특히 자폐와 관련된 도서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면 좋겠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들이 초기 상담하면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게 ‘치료하면 낫나요?’이다. ‘좋아지나요?’도 아닌 ‘낫나요?’ 쿠궁! 발달장애가 감기처럼 앓고 나서 싹 나가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 가끔은,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엉뚱하지만 절박한 상상에 빠지곤 한다! 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좋겠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언어치료 기관에서 일한 저자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만나 치료 수업을 하고 부모님과 상담을 나눈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쓰고 있다. 아이들의 이름은 물론 가명으로 처리했고, 감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담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37편의 길지 않은 글마다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발달장애 아이와 부모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편의 글마다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 정유진·그림 데니스 한 홍성사 | 236쪽

저자의 '서재'를 찾아가 보고 싶은 정도로 인용하는 책들이 다양하다. 아픈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자는 무조건적으로 '엄마'의 존재를 존경하게 됐다고 한다. “내가 만난 엄마들은 대단하다 못해 위대하다. 그렇지만 그 위대함과 강함 뒤엔 결국 위로가 필요한, 상처받고 어린 여자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런 '엄마들'에게 저자는 지면을 빌려 전하

고픈 말이 있다. “결국 아이의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결정해야 해서 외롭고 답답한 듯 느껴지더라도, 그런 모든 결정을 지지하는 엄마 편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중간중간 있는 그림을 그린 이는 데니스 한이다.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1년 4개월 무렵 뇌막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4~5세 수준에 머물게 됐지만, 화가로 활동하는 이모의 도움을 받아 뛰어난 색감과 형상의 그림을 그려내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with- 데니스와 이모」라는 책도 냈다.

저자는 “너무 부족하지만, 엄마 한 명이라도 위로가 되면 참 좋겠다”며 “하지만 정작 내게 아이를 데려왔던, 책에 등장하는 엄마들에겐 책을 드리지 않을 생각이다. ... 그동안 내가 만난 엄마들을 보며 느낀 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엄마들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관심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네 인식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산을 오르는 아이들

자폐아에게 '등산'이 좋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아들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한 어느 아빠의 이야기이자, 20년간 쉬지 않고 토요일이면 60여 명의 자폐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르는 산행 이야기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 변화와는 상관없이 매주 토요일에는 산에 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20년간 '천사(자폐아들)'들은 '짜꿍(자원봉사자들)'들의 손을 잡고 산행을 쉬지 않았다. 진짜로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왔을 때도, 36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변함없이 산을 올랐다.

특히 이 '짜꿍'들은 산행을 하다 보면 '중독성'이 생겨, 한주 내내 천사들의 해맑은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토요일이면 저절로 청계산으로 발걸이 향하게 된다고 한다.

20년간의 산행은 '웃픈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스님만 보면 다가가 목탁을 빼앗는 한 천사 때



산을 오르는 아이들 남기철 아가페북스 | 248쪽

문에 결국 입구에서 목탁을 치며 탁발하던 스님이 토요일 그 시간이면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어떤 때는 천사들이 실종돼 까맣게 속을 태운 일도 종종 있었다. 한 등산객이 장애인을 학대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 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오픈도어

저자는 “자폐는 치료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발달장애나 자폐증 아동들을 위한 치료 교육으로 국내외에 잘 알려진 한국특수교육원 원감으로서 '터치아이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30년간 수많은 자폐 아동들을 만났고, 10년 이상 자폐 아동들을 치료 교육하고 부모들과 상담해 왔다.

대부분의 병원이나 치료기관에서 자폐아동들의 사회 적응에 교육 목표가 있는 데 비해, 저자는 책 제목인 '오픈도어(Open Door)'처럼 자폐증의 원인과 비밀이 파악됐고 그러므로 자폐아동에 대한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의 1장부터 자폐아동 4명의 '치료 사례'가 등장한다. 이후 자폐의 현황과 진실, 특징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폐증 발생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등 대체로 도시화·산업화될수록 발생률이 높지만, 미국·영국·일본보다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낮은 것으로 보아 아이를 키우는 양육 환경과 방법 등에 따라 발생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폐아동 부모 중에는 고학력 전



오픈도어 김승연 한문 | 264쪽

문직 종사자가 많았고, 부모들은 보통 나이가 많고 순했던 효자와 효녀가 많았다. 부모의 맞벌이로 조부모가 주로 양육하는 경우나 어린이집에서 조기 보육을 받는 경우, 반대로 엄마와 단둘이 주로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등에서 자폐아들이 많이 발견된다.

저자는 자폐성 장애를 '사람결핍 장애'라 부른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결핍되어 자폐성 장애인이 됐다는 것. 선생이 시절 모자(母子)를 격리시키고, 핵가족화로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가 힘들어져 혼자 놀도록 유도하다 보니 사람이 결핍돼 간다

는 것. 거기에 다양한 사물과의 감각적 접촉도 부족해지고, 기계와 스마트폰 등에만 과잉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특정한 사물 등에 집착하게 된다.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고, 뇌가 불균형하게 발달하면서 자폐증이 나타났다.

“아이들 엄마와 마주 보면서 세상을 알아간다. 사람과 소통하는 법도 깨우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배운다. 엄마와 마주보는 시간을 빼앗긴 아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 이 사회가 기계와 미디어 속에 아이들을 가두었다. 아이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로봇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다.”

치료는 이 결핍을 채워 주는 것으로, 그 핵심은 '접촉(Contact)'에 있다. 모성에 충전과 감각 통합, 대근육과 소근육 사용 방법, 상호 작용 능력 등의 향상에는 부모들의 스킨십 만한 것이 없다. 과잉행동 조절에도 접촉이 효과적이다. 특히 언어치료와 애착관계 형성은 엄마가 직접 해야 한다. 또 “자폐아동들은 교육보다 치료가 먼저”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의 특징과 성향을 유전학적이고 타고난 것으로 보지만, 후천적 원인에 중점을 뒀다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들부인과 아들

저자의 첫 아들 준구는 돌을 맞기도 전에 경기를 일으키며 앓다가 뇌 손상을 입어 지적 발달장애를 얻었다. 그림을 전공했지만 치열한 양육 '전쟁'으로 몇 번 잡지 못한 채 지쳐갈 즈음, 같은 아픔을 가진 엄마들과 소통하고 싶어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다.

아들의 '자기만의 세계'는 '버들부인'조차 접근할 수 없이 고유하고 비밀스러웠고, 그래서 누군가 방해하면 그 세계는 삼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그럴 때면 아들은 뾰족한 가시를 한껏 세우고 비명을 지르곤 했다. 이처럼 저자는 아들이 빠져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조금씩 인정하고, 그와 소통하는 과정들을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언젠가 찾아올 이별(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그림책”이라며 “장애가 있는 아이



버들부인과 아들 유준경 홍성사 | 124쪽

를 받아들이고 품게 되기까지 흘렸을 엄마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홀로 남게 될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실제로 전혀 어둠지 않은 그림에는, 저자의 애환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는 듯하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동포노와 기도운동추진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머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전도에 날개를 달아라

이동재 목사 (분양현신교회)
소강석 목사 (세애교회)
전병금 목사 (강남교회)
장경홍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란교회)

추천!!!

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전도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객준성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비게이션과도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다양한 구성을 보는 것보다 더 쉽고 실용적인

심대지 설교본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금천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아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신앙교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처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교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빠! 어떻게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라 권)



About 25 individuals from five different churches in the South Bay will go to Thailand as one mission team this summer.

Five Churches, One Team: South Bay Churches Unite for Missions

BY RACHAEL LEE

Young adults from five different churches in the South Bay will form one team to embark on a mission trip together this summer.

The mission team of about 25 consists of members from Shalom Presbyterian Church, South Bay Mission Church, Crosslife (the English ministry of Gardena Presbyterian Church), The Branch (the English ministry of Podowon Baptist Church), and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This will be the second time that these five churches — which are part of a group called 'South Bay Together' — will be going overseas together to orphanages in Thailand. Last year was the first.

"Doctrinally we might disagree on certain things, but no matter what, one thing we can agree on is that we need to minister to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said Woogie Kim, the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Shalom, who started the South Bay Together gathering.

Initially, Kim began South Bay Together as an informal, casual gathering in hopes to encourage other Korean American pastors in the area, but eventually the pastors decided to participate in ministry efforts together, such as doing joint retreats and preaching at each others' churches. The pastors meet together regularly and went separately to Thailand previously to account for the logistics of the mission trip.

"In the South Bay, everyone's usually kind of separate, doing their own thing," said Stephanie Yoo, a 22-year-old member of South Bay Mission Church. "The fact that our churches are coming together — that in itself is so cool. And that means our testimonies will be going out to multiple churches as well."

The team will be going to multiple orphanages in Thailand, including in Bangkok, Chiang Mai, and other rural parts of the country.

Reaching children at the orphanages in Thailand with the gospel has a particular significanc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are more vulnerable

to becoming victims of crimes such as human trafficking, said Woogie Kim. When thinking of human trafficking, people may think more of saving people who are already victims of the crime, but "what's just as important is preventing people from getting into that situation in the first place," Kim explained.

To prepare for the mission trip, the team has been meeting every week since the beginning of April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ailand, to learn how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being in a different country, and to bond among team members, among other things.

But ultimately, Woogie Kim said, his hope is not necessarily that the team would do something grand like 'winning Thailand,' as people often say about mission trips.

"We can say we're going to win Thailand for God, but we have such a hard time with even the small inconveniences," said Kim. "My expectation is for us to change and learn what it means to be a witness for Christ."

The 13th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Commences

BY DAE WOONG LEE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13th North Korea Freedom Week (NKF) was launched on April 25 at 10 AM at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where human rights and refugee organizations from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ere present.

The event will run until the 30th, and features a packed agenda. With about 20 organizations participating, this year's NKF will focus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r. Suzanne Scholte, who is often known as the 'godmother of refugees,' and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lso visited South Korea for the event.

Some portions of the week's events include Christian faith-based gatherings, such as the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on Monday evening local time at 7:30 PM, focusing on the "freedom, life, and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Esther Prayer

Movement' will also host another prayer gathering on the 30th at 8 PM at Joong Heung Church in Seoul.

A celebratory worship service before the launching of NKF took place at Sae-Teo Church in Seoul with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out the week, a variety of events will take place, such as a presentation on the policy directions and needs after the passing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 press conference with four refugee women who lost their children in China; a session at the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hosted by a Japanese refugee organization about the need for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resto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a strategy meeting regarding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s of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in the process. A gallery of photos and artwork — some created by North Korean refugees — focusing on the need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ll also be presented throughout the week.



(Photo: Square Prayer Meeting for Reunification) Dr. Suzanne Scholte (left, first row) and others praying during the Monday night prayer meeting as part of NKF.

Churches and College Ministry Join Forces to Reach Youth

SOON Movement (also known as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partnered with the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San Diego (KPASD) to host a conference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April 23.

"There are a lot of events for adults, but at some point, events for the youth started disappearing," said Keesong Lee, who does inner city ministry with SOON Movement. "During a time when the reality is that about 80 percent of youth

leave the church after they graduate, we need to share with them the true meaning of the gospel."

The event wa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a mission organization and local churches came together with one purpose to prepare for the event.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SOON Movement and San Diego churches partnered to host such an event. About 170 students and parents attended. Churches that are a part of the KPASD prepared food for

the event, and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repared and led the students in games. During the afternoon and evening, attendees participated in worship, with a sermon and a time for commitment.

About 65 youth students decided to receive Christ at the gathering.

During the conference, Opera California Youth Choir sang worship songs, and three youth students received scholarships from the KPASD.



(Photo: SOON Movement) Students from UCSD volunteered at the youth event.

Theology and Counseling Courses for the Lay Member

BY RACHAEL LEE

Many may be interested in studying topics offered at seminaries, but not everyone actually pursues those studie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lack of qualifications, cost, or lack of time. A program through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GBTS) is offering courses this summer that may be an option for such individuals.

The summer courses — one on theology, and another on Christian counseling — will be offered through one of the seminary's 'Contextualized Leadership Development' (CLD) centers called Long Beach Harbor Zion Theological School (LBH ZTS). Those who have hesitated from applying for courses at a seminary may find that CLD courses like the ones be-

ing offered at LBH ZTS this summer fit their needs.

First, anyone — as long as they are born-again Christians — could be eligible to apply for programs offered through the CLD centers, even those without a high school diploma. The CLD centers were first established to train individuals regardless of background for effective Christian service.

Second, it's relatively affordable. While many courses in theological schools cost about \$500 or more per unit, the two courses being offered this summer through ZTS are \$285 each including the registration fee, and both courses are worth 3 units.

Third, it's flexible and short-term. The courses are only 10 weeks long and will be taking place on Saturdays and in the evenings

on weekdays, allowing them to be accessible to full-time workers.

Units earned through CLD centers could also work toward a CLD certificate or CLD diploma. Those with CLD diplomas who eventually decide to apply for a Master's program at a theological school could also earn 10 or more credits upon enrollment. CLD diploma-holders also become eligible to be sent as missionaries from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

Some may wonder whether the classes will be somewhat superficial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short-term. Dr. John T. Shin, who will be teaching both of the courses, says he makes sure to teach his students all that he knows about any subject he teaches in the time frames given to him.

"It won't just be a survey," he said. "Whatever the Lord taught me, I'm trying to teach to my students."

The course on theology will explore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the church, and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mong other topics. The course on Christian counseling will discuss 43 different areas of counseling, including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crisis ministry, and pastoral ministry, among others, all with a focus on the role of the Holy Spirit to bring healing and guidance.

"I feel like many churches are sleeping, or enjoying safe zones," Shin said. "I hope that Christian leaders could be trained through these courses and that it would



Dr. John T. Shin will be teaching two courses this summer at LBH ZTS.

bring about an awakening movement."

Registration for these courses end on May 7. For more information, email jjshinglobalms@hotmail.com.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Colorado Supreme Court Declines Appeal Over Same-Sex Wedding Cake

BY CHRISTINE KIM

The Colorado Supreme Court declined to hear the case of a baker who refused to make a wedding cake for a same-sex couple on religious grounds, upholding a lower court ruling that deemed his refusal an act of discrimination.

In 2012, David Mullins and Charlie Craig were denied their request for a cake by Masterpiece Cakeshop owner Jack Phillips who had cited his religious beliefs as the basis for his rejection.

The couple, represented by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of Colorado, filed a complaint to the Civil Rights Commission against Phillips, who was found guilty by the Commission of violating Colorado's Anti-Discrimination Act in May 2014.

"We all have a right to our personal beliefs, but we do not have a right to impose those beliefs on others and discriminate against them," ACLU staff attorney Ria Tabacco Mar said in a statement.

In August 2015, the Colorado Court of Appeals affirmed the decision of the Civil Rights Commission.

"Masterpiece remains free to continue espousing its religious beliefs, including its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the decision states.

"However, if it wishes to operate as a public accommodation and conduct its business within the State of Colorado, CADA (the Colorado Anti-Discrimination Act) prohibits it from picking and choosing its customer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it continues.

Phillips, represented by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was prompted to

file a petition to appeal with the Colorado Supreme Court in October 2015.

"We asked the Colorado Supreme Court to take this case to ensure that government understands that its duty is to protect the people's freedom to follow their beliefs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not force them to violate those beliefs as the price of earning a living," Alliance Defending Freedom Senior Counsel Jeremy Tedesco said in a statement.

"Jack, who has happily served people of all backgrounds for years, simply exercised the long-cherished American freedom to decline to use his artistic talents to promote a message and event with which he disagrees, and that freedom shouldn't be placed in jeopardy for anyone," Tedesco added. "We are evaluating all legal options to preserve this freedom for Jack."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Bible Studie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U.S. Suicide Rate on the Rise, According to CDC Study

BY CHRISTINE KIM

The number of suicides in the US is at an all-time high in nearly three decades, according to a new report released on Friday by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t a rate of 13 per 100,000 people in 2014, the rate of suicides has increased compared to 10.5 per 100,000 in 1999, with an overall increase of 24 perc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The study found that the suicide rate has been on the rise for every age group and racial ethnic group, except for two groups: black males and people over 75 years old.

American Indians and Alaskan Na-

tives showed the largest increases at a rate of 89 percent among women and 38 percent among men.

The suicide rate for teenage girls and middle-aged women sharply increased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The rate for middle-aged women, ages 45-64, climbed to 63 percent and tripled among girls ages 10-14, as the number of girls in that age group who committed suicide rose to 150 in 2014 from 50 when the study began.

The study found that the suicide gap rate has narrowed between genders as the rate for females increased by 45 percent, compared to 16 percent for males. However, the suicide rate remains three times higher in males than in females.

Although the CDC does not offer concrete explanations for the increased suicide rate, some experts point to the financial downturn in the late 2000s and the increased abuse of prescription drugs as potential factors leading to the phenomenon.

"Many people view suicide as a mental health problem, but many people who die of suicide do not have a mental health problem. It's a public health problem," Kristin Holland from the CDC told USA Today.

"This is part of the larger emerging pattern of evidence of the links between poverty, hopelessness and health," Harvard professor of public policy Robert Putnam told the New York Times.

One Year After Nepal Earthquake, Areas Still Lie in Ruins

One year ago Nepal was struck by a devastating earthquake which killed over 8,000 people and wounded 21,000 oth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pledged billions of dollars in relief and reconstruction work, but still, some the worst-hit areas lie torn down, according to reports.

Some people are working from damaged buildings that can collapse any time, like Punya Gajurel, who manages a school.

"We have to have somewhere to keep working," Punya Gajurel told Deutsche Welle from the third floor of a building which has completely damaged lower floors sagging from the weight of upper rooms. "This is the only room we have left."

The Nepalese government has not yet rebuilt the area, and the efforts

seem so slow that British officials, one of the international donors, are disbursing money directly to construction as the local authorities seem to be lagging behind in implementing the disaster-relief plan.

"We really need to see actual reconstruction start to happen, and start to happen fast. I think many donor agencies are getting very frustrated with the pace of progress," said Kenichi Yokoyama, Nepal head of Asia Development Bank which has contributed towards the relief fund.

Thousands of people continue to live in temporary shelters which have no electricity, where it gets too hot in summer and too cold in winters. With the approaching monsoon season, they are left vulnerable to heavy rains and floods in their makeshift accommoda-

tions. The United Nations Nepal team expressed their solidarity with the Nepalese people, and also raised concerns about the upcoming monsoon season.

Nepal's tourism industry is one of the main sources of the country's income, and has suffered the most after the earthquake. After one year, travelers have returned, but in far less numbers compared to before.

"There are no sales at all. We don't have time to stay this idle at this very peak season," said Bishnu Sapkota, a mountaineering shopkeeper.

A group of students from Cambridge University have been working with the Helambu Education and Livelihood Project for the last year to raise money and awareness for rebuilding efforts in Nepal.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골든게이트 침례대학 대학원 CLD 분교



- See the Bible as One Moving Picture! Eat the Small Scroll and Witness the Gospel of Jesus Christ! Do His Ministry of the Holy Spirit as Moses, Elijah, and Apostles in His Time!
- Self-sustaining, self-mobilization, self-governing, self-theologizing, self-missiology, self-Christcentering, and self-Christactualizing in Christ

COURSE STUDY FOR SUMMER 2016	PROFESSOR	Units per	Reference
CLL 1212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Wednesday 5:30pm-10:00pm **Saturday 8:30am-6:45pm	Dr. John Shin Wednesday : 5/25, 6/1, 6/8, 6/15, 6/12 Saturday : 5/28, 6/4, 6/11	3 units Intensive Course	Long Beach Campus
**Monday 5:30pm-10:00pm **Wednesday 5:30pm-10:00pm	Monday : May 30th, June 6th, 13th, 27th, 29th Wednesday Joining at the Long Beach Class	10 Week Course	El Monte Campus
CLP 1512 Counseling for Church Leaders of the Holy Spirit **Monday 5:30pm-10:00pm **Saturday 8:00am-12:30pm	Dr. John Shin Saturday : 6/18, 6/25, 7/2, 7/9, 7/16, 7/23 Monday : 7/6, 7/13, 7/20	3 units Intensive Course	El Monte Campus

- Vice President, Dr. Michael Martin
- National CLD Director, Rev. Don Beall
- CLD LA, LBH Zion Theological School (E9)
- Director, Dr. John Shin
- Telephone T(818)421-4520, jshinglobalms@hotmail.com
- Registrar, Nant Khambounheuang 562/242-6015
- LA Campus : 3041 N. Peck Rd., El Monte, CA 91731
- Long Beach Campus : 3435 San Anselme Ave., Long Beach, CA 90808

Shaping effective Christian leaders for the churches of tomorrow

The Last Date of Registration: May 7, 2016!!!

HAVE GREAT VISION OF GOD AND BE GLOBAL!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만민을 품어라!

Our Christian Leaders School Invites the Dedicated Christian Leaders for Today and Tomorrow!

- Triple-Language Tracks** : English, Spanish, Korean
- Diploma Degree** : Ministry, Theology, Church Planting, Women's Leadership
- Opportunity** : Upon completion of program, students graduate and receive Diploma degree GGBTS and are GGBTS alumni : More than eleven mission ministry opportunities are opened to individual his or her qualification.
- COUNSELING FOR CHURCH LEADERS IN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e course covers forty three essential subjects or areas in 21st century including an additional emphasis on doing His "Spirit-filled Counseling Ministry."
-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f Christian Theology surveying the Person of Christ and His Work, Person of the Holy Spirit and his work Salvation the Church and Her Work, and the Last Things and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including an additional focus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hristian thought and practic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새 봄 맞이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SE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50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All in Stock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6 HYUNDAI
GENESIS Signature Package

Lease It For **\$239** +Tax

All In Stock With
MSRP \$43,78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2,500 Lease Cash,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